

도스토예프스키와 보낸 한철

책으로 쓰는 자서전 — 7

김병익 | 문학평론가

“막사를 둘러싼 숲과 언덕, 새벽의 신선한 대기와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감동받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던 나는 이 러시아 작가의 세계에 탐닉했고 압도됐으며 세뇌당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준령에 오르면 카뮈나 사르트르, 헤세나 헤밍웨이 등 20세기의 문호들도 나지막한 언덕으로 내려앉아 보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나의 음울과 비관주의와 고통의 색깔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군대생활을 유쾌하게 회고하는 사람들의 기억은 대체로 신나는 영웅담이겠지만 내게는 그것이 내 생애 중에 하나의 벽감(壁龕)처럼 나 자신을 거기에 은닉시켜 자유롭고 평화롭게 혼자만의 사유로 유희시킨 ‘명상의 시간’으로 윤색되고 있다. 육군 졸병의 자유라니! 내 스스로에게도 의아스러운 말이지만, 그 32개월의 청년시절은 앞으로 내가 소속될 사회적 일상과, 그리고 그동안 친숙해온 기왕의 세상에서 벗어나, 무연(無緣)한 세계 속에서 나만을 대자적으로 상대하며 나의 내면을 다듬을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였음은 분명했다. 물론 논산훈련소에서 육체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던 힘든 훈련을 겪었고 배치된 전방 부대의 신병 초기시절에 이른바 ‘고문관’ 노릇도 했지만, 훈련소에서 “입대 이전의 모든 일은 팽개쳐버리고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기간 사병의 고탍대로 나는 환경도,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일상의 방식도 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상태로 완전 노출돼 ‘세계에 투기된 나의 존재성’을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운명이어 오라. 그 모두를 받아들여라!”

이랬던 것은 입대하기 전의 어둡고 칙칙했던 나의 일상적 분위기가 군대 시절의 해방감과 크게 대조된 탓일 것이다. 종말론의 내적 경험에서 세

상을 투시하는 희열을 느꼈다 해서 세계의 무의미성과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가신 것은 아니었다. 대학 4학년 때 4·19를 목격하고서 졸업하기까지, 그리고 이제 공부나 할까 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지만 곧이은 5·16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공부마저 포기하고 대전 집에서 뒹굴던 1년 남짓 만에 입대하기까지의 그 ‘좋은 시절’을 나는 무기력하고 퇴폐적으로 보냈다. 마침내 기다리던 영장을 받으면서 나는 군대라는 새로운 경험이 챗바퀴 같은 나의 무력한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계기는 삶의 현실에서보다 나의 내면에서 더 의미있게 다가왔다. 삼복 더위 속에서 훈련을 받고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던 어느 가을 날 나는 배출대에서 한가롭게 다사한 햇빛을 쬐며 맑은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문득 그 하늘에서 울려오는 ‘운명의 베틀 소리’를 들었다. 저 높은 곳에서 인간 하나하나의 태어남과 자라남, 살아감과 죽어감의 생애들을 거대한 베틀 앞에서 짜고 잇는 소리였다. 베틀 모양까지 환하게 눈안으로 들어오는 그 정경과 귀를 울리는 그 음향을 몸으로 느끼면서, 문득 “운명이어

오라. 그 모두를 내 받아들여라!”는 니체적인 외침이 내 속에서 울렸다. 그 순간 내 앞으로 펼쳐져 있는 운명의 길이 내게 보이는 듯했고 그 모두를 담담히,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 듯했다.

그로부터 반년쯤 후 5군단 본부중대의 일종계 일을 보던 나는 휴가중에 나의 여자친구를 자학적인 심리로 별 이유 없이 눈물이 떨어지도록 울리고는 귀대하는 버스 속에서 “나는 과연 타인을 괴롭힐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졌다. 그 대답이 너무나 자명할 이 질문은 그러나 몇 주간 나의 화두가 돼 집요하게 나의 내면을 긁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환한 햇살 속에 밝게 가로막은 언덕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면서 문득 “없다!”는 확신의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렸다. 그래, 내게는 타인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권리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열이 전류처럼 내 속을 훑고 지나갔다. 이제 나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그때 나는 다짐했다. 그러나 어이없는 아이러니였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서 절교의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연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후부터 나는 더 이상 좌절이나 절망, 무의미, 허무 따위 실존의 부정적 감정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다. 오래 나를 괴롭혀온 젊은 번뇌가 이때부터 삭아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타임》서평란 통해 《순교자》 알게 돼

마침 이즈음의 나는 중대장의 호의로 일종계에 서 군단 공보실로 자리를 옮겼다. 전역이 멀지 않은 대위인 실장과 시골 출신의 나이든 선임하사만이 있는 이 공보실에서 나는 졸병으로 장교가 할 일을 해야 했다. 군단내의 이런저런 뉴스를 기사로 만들어 육군신문에 보내고 서울 외출 나와서 USIS의 화보와 뉴스레터를 얻어오며 대북 마이크 방송 원고에 대한 평가작성까지 실장을 대신해서 해야 했다. 어느 밤에는 실장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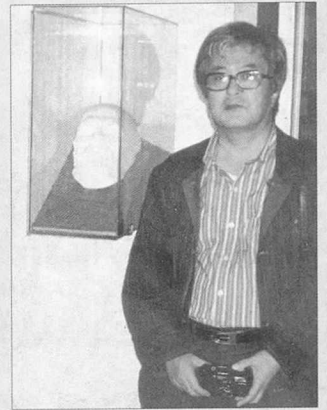
블러 사무실에 나왔다가 비무장지대를 논밭으로 개간하는 문제 때문에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군단장 브리핑 원고를 내가 밤새 써야 했던 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 나는 막히는 대목마다 실장에게 질문했고 그러면 실장은 군단장실에 뛰어가 그 답을 얻어오고 그것을 내가 원고로 작성하는 희한한 일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보면 당초에는 아무 의도가 없었음에도 내가 기사를 하고 혹은 문학비평을 하게 되는 인연의 씨앗이 여기서 돌아난 것인지도 모른다. 일 자체도 군 사병으로서는 고급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여유 있고 자유로웠다. 그 풍족한 시간을 나는 자연스레 글 읽는 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때 가장 많이 본 것이 사무실에서 정기구독하는 《타임》이었다. 그것은 내게 두 가지 득이 됐다. 우선 《타임》의 그 유려하면서도 재치있는 문장의 맛이였다. 여기서 나는 영어의 복문 활용법에 감탄했고 후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사문에도 이런 복문체의 묘미를 넣을 수 없을까 고심했고 그럴 수 있기 위해 노력했다. 또 하나는 이 시사지의 기사를 통해 나의 내적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커버 스토리가 특히 내 인식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됐는데, 그 가운데도 《타임》 창간 40주년 기념호(그러니까 1964년 4월경이었을 것이다) 특집은 현대인의 소외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간적 노력을 소개해서 내가 벗어나려고 애쓴 비관적 세계 인식으로부터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후의 내가 사고의 반전을 이루는 데 깊은 영향을 줬다.

김은국의 《순교자》를 읽게 된 것도 《타임》의 서평판 덕분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카뮈의 비극적 인식의 대를 잇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 이 기사를 보고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이 책의 영어판을 휴가중에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다. 소재도 기독교 문제인 데다 문체가 쉬워서 나는 이 책을 열심히 그러나 아껴가며 봤다. '아껴가며'란 말 그대로, 나는 사무실과 막사에서 혹은 외출한 읍내의 다방에서 틈나는 대로 조금씩조금씩, 그러나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오래 입안에서 조심스레 굴리리는 사탕처럼, 그 맛을 천천히, 즐기며 읽었다. 카뮈의 《페스트》처럼 신 없는 시대의 폭력과 인간의 진실이란 주제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제대한 후 《순교자》에 대한 소감을 써서 J가 다니는 은행의 잡지에 그녀의 이름으로 게재해 원고료를 타먹은 기억이 난다. 나의 첫 비평문이 될 그 글은 그러나 지금 어디 박혀 있는지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세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어준 도스토예프스키

《순교자》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내친 김에 도스토예프스키를 읽기로 했다. 황동규에게 영어판으로 된 《약령》과 《백치》를 잇달아 빌려 《순교자》를 보던 방식으로 읽기 시작했다. 각각 두 권의 하드커버로 된 포켓판 크기여서 커다란 군복 주머니에 알맞게 들어가

는 이 책들을 역시 사무실과 막사와 다방에서 틈틈이, 그리고 아껴가며 읽었다. 《약령》에서는 니체적 초인을 닮은 스타브로킨과 니체보다 앞서 "신은 죽었다"고 외친 허무주의자 키릴로프, 순진성과 사랑의 화신인 샤토프, 철저한 현실 사회주의자 포르트 등 일군의 지식인들이 광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며 싸우고 패배하는가 하는 문제가 절망적으



군대시절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읽고 비로소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눈을 닦을 수 있었다. 사진은 레닌그라드의 도스토예프스키 기념관에 있는 그의 데스 마스크 앞에서 서 있는 필자의 모습(1989년 9월).

로 내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각각의 인물들이 펼쳐내는 사상의 깊이는 한없이 깊은 것이었다. 《백치》에서도 역시 위시킨 공작의 한없는 순진성과 투명한 직관은 인간의 윤리성에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막사를 둘러싼 숲과 언덕, 잠깐 새벽의 신선한 대기와 막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감동받으며, 《약령》과 《백치》, 그리고 전날 번역판으로 읽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통해 나는 이 러시아 작가의 세계에 탐닉했고 압도됐으며 세뇌당했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준령(峻嶺)에 오르면 카뮈나 사르트르, 헤세나 헤밍웨이 등 20세기의 문호들도 나지막한 언덕으로 내려앉아 보일 정도였다.

후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초의 연휴 때마다 정음사판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꺼내 읽어보려 했고 그의 전기나 연구서를 눈에 띄는 대로 사기도 하고 마침내 70년대 후반 권영빈(현 《중앙일보》 논설주간)의 제의로 E. H. 카의 《도스토예프스키》를 공역해 흥성사의 신서판으로 내게 된 것도 군대 시절의 도스토예프스키 독서 덕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음울하고 비관주의적이며 세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통해 나의 음울과 비관주의와 고통의 색깔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듯 내적 고뇌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했고 도스토예프스키를 통해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얻게 됐다. 스무살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까지의 나의 긴 방황은 독일 교양소설에서 보는 젊은 날의 귀중한 방황 시대와 비슷했을 것이다. '벽감 속의 아늑한' 시절의 공간 속에서 나는 젊은 번뇌를 극복하고 세계를 보고 이해하는 눈을 닦았으며 이후 나의 사회 생활을 감당할 내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